

병사들의 눈높이에서 본 참혹한 전쟁과 살육의 역사

2015년에 개봉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영화가 있다. 핵전쟁으로 멸망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다. 독재자 임모탄 조는 물과 기름을 독차지하고 마침내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 그의 곁에는 신처럼 따르는 전사들이 있다. 일명 워보이다. 어느 날 이 워보이 가운데 익명의 인물이 임모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기꺼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다.

워보이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 한마디를 외친다. "기억해 줘!" 그의 절규에 동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대답한다. "기억할게!" 그러나 과연 동료 워보이들은 죽어간 병사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이 될까?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남은 동료들은 희생한 전사를 조롱한다.

인류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사 이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단지 몇 개의 전쟁만을 기억할 뿐이다. 세계대전, 십자군전쟁, 이라크전쟁 등처럼 말이다.

"기억이 우리를 망각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관념은 역사가의 교묘한 사망발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는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방법을 불러낸다."

영국의 군사사가이자 저술가인 마이클 스티븐스의 얘기다. 그는 '3D로 보는 미국 내전', '애국전쟁: 미국 독립전쟁은 어떻게 싸웠는가' 등을 펴낸 군사 분야 전문가다. 마이클 스티븐스가 다시 전쟁을 소재로 의미 있는 책을 펴냈다. '전쟁의 재발견'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전투를 조망한다.

저자는 묻는다.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죽었는가? 저자는 적군과 마주한 병사들의 눈높이에서 전투와 무기 그리고 살육의 역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전쟁의 재발견

마이클 스티븐스 지음, 조흥복 옮김

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까지의 전쟁사가 문화적이고 지형적인 조건에 토대를 둔 전략과 전술 위주의 '위로부터의 역사'였다면, 이번 책은 참혹한 전쟁 속에서 적군과 싸운 병사들의 '밑에서 본 역사'이다.

전쟁사가인 앤서니 비버 교수는 "진정한 전쟁의 경험을 이토록 생생하고 명료하게 전달한 책은 없다"고 상찬할 만큼 책은 전쟁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일단 책에는 선사 시대 부족 전투부터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전쟁,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쟁, 중세 십자군 전쟁,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 다양한 전쟁과 전투가 담겨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전쟁의 시대적 양상에 주목하면서 시대의 문화를 가로지르는 연결 고리를 포착한다. 전쟁과 관련된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연구서를 비롯 참전 용사들의 회고록도 참조한다. 여기에 호

전쟁 관련 통계·연구서·참전용사 회고록 등 참조

선사시대부터 십자군·세계대전 등 현대까지 전투 조망

"적을 살상하려면 이편도 피를 봐야" 가혹한 진실 담겨



메로스, 존 스타인벡의 문학작품까지 살살이 들춰보며 전쟁의 광경을 실감나게 펼쳐낸다.

책의 핵심 포인트는 '전쟁은 남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점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는 영웅들의 대결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대

전투는 팔랑크스(밀집대형)로 전개됐는데, 군인들은 무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보다 압사하고 질식사 더 많았다.

중세의 전투는 기사의 비중이 높게 나와 있지만 보병의 역할 또한 이에 못지않았다. 주요 기간 보병

은 숫자상으로 기병을 "적어도 다섯 배 압도했다"고 한다.

식민지전쟁의 명분은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자들을 문명화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잔인한 살육으로 이어졌다. "신체 절단과 포로 고문이 명백히 식민지전쟁에만 한정된 특징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미지 부여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각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1차 대전은 여러 모로 전쟁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대규모 살상물, 전면적인 기계화 전쟁, 독가스의 살포, 전차전의 시작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적을 살상하려면 이편도 피를 봐야 한다는 가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저자는 현대의 전투는 영웅적이지 않다고 단언한다. 병사들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대의는 조장되고 국민적 헌신은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불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벌인 전쟁은 각국의 사회에 크고 결정적인 분열을 낳았다.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전쟁을 두고 이른바 영웅적 정신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졌고 때로는 정부에 대의와 강력한 도적적 맥락을 만들어내기 위해 약간의 '장조적인 고쳐 쓰기'를 해야 했다."

<교양인·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유즈키 유코 지음, 이운정 옮김 '고독한 늑대의 피'

구례하라 동부서 수사 2과의 폭력단계 반장 오가미 쇼고는 경찰 표창 수상 100회에 달하는 히로시마 현경 내 최고의 민한 형사다. 그러나 정계저분도 최고를 기록하는 이율배반적인 인물이다. "폭력단이 사라지면 우리 밥줄도 끊겨"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그는 수사의 명목으로 폭력, 금품 갈취,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야쿠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몰고 다닌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괴멸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거리의 폭력배들과 격이 없이 한담을 나누고 때에 따라 절도와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008년 '임상진로'로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유즈키 유코의 신작 '고독한 늑대의 피'가 발간됐다. 저자는 2013년 '검사의 속원'으로 제15회 오야부하루회상을 받고 '반상의 해바라기'로 2018년 서점대상 2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나오키상, 야마모토 수고로상,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에 수차례 노미네이트 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작가다.

이번 스릴러물 '고독한 늑대의 피'는 1988년 폭력단 대처법 성립 이전의 혼란한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경찰과 조직 폭력단 간의 투쟁을 그린 소설이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치밀한 구성, 탁월한 리얼리티, 예기치 못한 결말의 정통 하드보일드", "일본 미스터리 역사에 남을 금세기 최고의 경찰 소설"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가는 짧고 간결한 문장과 담백한 묘사를 통해 선 굵은 화제를 대담하게 펼쳐 보인다. 무엇보다 치밀한 취재와 답사를 배경으로 시대 묘사와 입체적인 인물 조망, 경찰과 야쿠자라는 상반된 세계에 놓인 조각을 긴밀히 엮어낸다. <작가정신·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현철 지음 'J노믹스 VS.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저성기의 초입에 들어선 듯한 한국이 J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노믹스 모두 그간 동아시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케인스주의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과연 케인스주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 경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UCLA 한국어 연구소 객원 연구원을 역임한 방현철 박사가 'J노믹스 VS. 아베노믹스'를 펴냈다. 책은 대통령의 경제학을 '노믹스'에서 찾는 경제비전으로, 과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케인스주의에 뿌리를 둔 '소득 주도 성장'과 '재정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지난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탄생한 케인스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학 흐름이다.

주요 국가들은 다시 케인스주의 이론을 꺼내 들었으며 여러 노믹스들도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둔 사례가 많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역시 이에 토대를 둔 '과감한 금융 완화'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자는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반드시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찾고 있다. 그것은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성장 해법을 찾는 데 있다. <이론·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총덕 지음 '독서로 말하라'

책을 잘 읽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28년 간 교직에 있으면서 독서 교육 확산에 힘쓴 노총덕 '노총덕인문아카데미' 대표가 펴낸 '독서로 말하라'는 독서를 위한 길잡이 책이다. 저자는 1000권의 책을 읽고 문사철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전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세상은 변하고 삶은 단순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멈추지 않고 배우는 사람만이 늘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책이다. 책을 읽는 것만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관점을 가져다준다.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든다. 새로운 사실, 가려진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바뀐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생긴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커진다. 삶이 변한다.

저자에게 책이란 삶의 기쁨, 존재의 의미, 인생의 품격과 함께 단단한 나를 만드는 생각의 도구다. 공부 잘하는 것과 독서 잘하는 것은 다르다. 자기발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독서다.

'좋은 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첫째로 '세계사·국사 교과서에 실린 책'은 대부분 읽는 것이다. 둘째, '독서가가 추천한 책'을 읽는다. 셋째, '국회도서관이나 출판사 서평'을 보고 읽을 책을 고른다. 넷째, '실용도서'를 읽는다. 다섯째, '책 속에서 책'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세계 유명 대학이 선정한 책'을 찾아 읽는 것을 추천했다. <모아북스·1만4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 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속 GOOD! | 이온, 실크, 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 육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